

# “정규직 아닌 인턴이어도 좋아” 절박한 취업생 복직

르포-조선대서 열린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가보니

### 공기업 등 20여 업체 참가 4년만의 대면 행사 3000여명 찾아 고흥·완도 고교생들도 새벽 버스 타고 긴장 속 모의면접 치러 대부분이 체험형 인턴 선발...“늘어선 긴 줄 보니 취업난 실감”

27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일대는 아침부터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모인 취업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광주·전남 취업난에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취업생들이 채용박람회 몰려든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2023년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 최대 취업박람회로, 지역 인재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지난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4년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참여 대상 또한 기존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서 특성화고교 학생들까지 확대했다.

이날 행사장은 개장 시각인 오전 10시부터 200여명의 취업준비생들로 북적였다. 장소를 대어준 조선대에 따르면 행사장에 찾아온 인원은 총 3000여명에 달했다.

행사장에는 공기업 등 20여개 업체가 참가해 부스를 꾸리고 기업 소개 및 취업 정보를 안내했다.

이중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인기 부스는 취업생 10여명이 앞다퉈 몰려들었다.

한전KPS,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면접장에는 미리 예약한 17명이 긴장한 얼굴로 줄지어 서 모의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곳곳에서 취업생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듯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만 말해준다. 인터넷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정보 뿐이고 실제로 얻은 건 많이 없다”는 불멘소리가 나왔다.

행사장을 찾아온 이들은 취업전선에 갓 뛰어난 고교생부터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까지 다양했다. 고흥 도화고, 완도 수산고 등 전남지역 학생들도 취업 자리를 알아보러 새벽 버스를 타고 행사장을 찾아왔다.

취업생들은 한 목소리로 “취업이 안 되니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석완(23·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2년 6개월 동안 컴퓨터 납품 회사를 다녔지만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올해 초에 그만뒀다”며 “전기와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난과 경쟁이 힘들어 일본 등 해외취업까지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종우(26·남구 봉선동)씨는 “1년 반째 취업 준비 중인데, 인터넷만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



취업준비생들이 27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행사장에서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려워 박람회까지 찾아왔다”며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고 이른바 ‘쌍기사’가 됐는데도 취업이 늦어질까 불안한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

연인 사이인 최성진(24·광산구 장덕동), 박세린(여·24·목포시 산정동)씨는 몰려든 취업생들의 인파에 혀를 내둘렀다. 최씨는 “취업도 어려운데 긴 줄을 뚫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다니 취업난이 실감난다”며 “3개월 걸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전산세무회계 뚫었지만, 재무 직렬 공기업에 들

어가려면 아직도 부족하다. 회계자격증, CPA자격증까지 따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전했다.

각 업체 부스는 대부분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을 뽑는 데 설명을 집중했는데, 취업생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 자리마저 절실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명조(26·남구 봉선동)씨는 “당장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채용이 확실한 체험형 인턴이라도 감지덕지다”며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사회 경험이라

도 쌓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15~64세 고용률은 68.7%를 기록했으며, 광주는 그에 한참 밑도는 59.8%의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거주 15세 이상 인구 128만명 중 취업자는 76만명이다. 전남 또한 152만 4000여명 중 취업자는 102만 7000여명으로 고용률은 67.4%에 그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재미 유학생 ‘광주 티셔츠’ 광주 왔다

### 5·18 때 미국서 민주화운동 지지 시위하며 입었던 옷

#### 김환희씨 5·18기록관에 기증

5·18민주화운동 당시 재미 유학생들이 미국 현지에서 ‘민주화 지지 시위’를 하며 입었던 티셔츠가 광주에 돌아왔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난 25일 이윤희 미주 지역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 회장으로 부터 1980년 당시 재미 유학생들이 입은 ‘광주 티셔츠’(사진)를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티셔츠는 흰색 바탕에 ‘광주’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1980년 5월 미국에서 외신을 통해 광주항쟁 소식을 들은 유학생과 한인들이 사카고,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민주화운동 지지 시위를 벌이며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기증된 옷은 재미 유학생 김환희씨가 입었던 옷으로, 김씨는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희 회장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5·18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5·18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대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5·18 참여자 중에는 미국 국적 취득 등을 이유로 명예 회복이 지연되거나 배제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범죄전력 확인 땀 5·18유공자 박탈 적법”

### 광주고법 항소심서 원심 유지

5·18유공자라도 범죄전력이 확인되면 정부가 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18 유공자인 A씨가 광주지방법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17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공원 앞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 골절상을 입고 1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을 신청해 1990년 12월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부상자)로 인정받고 장애등급 14급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 2002년 광주보훈청에 광주민주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에서 A씨가 법 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강도강간죄(1980년 7월 범행)로 1981년 항소심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점이 확인돼 2021년 2월 광주보훈청은 A씨에게 법 적용배제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5·18유공자 신청 당시 광주보훈청이 A씨의 전과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년 가까이 지원 해온 것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요건에서 ‘법적용 배대상’으로 결정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적용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보면 광주보훈청이 범죄전력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광주보훈청의 손을 들어 줬다.

이후 A씨는 광주보훈청이 언제든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을 결정했다는 점과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효력은 소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여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광주보훈청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효력의 소급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향후 반환의무 면제 사유에 관한 조사·심사를 거쳐 판단하게 되는 것일 뿐 처분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생활고·우울증 50대 극단 선택 90대 노모는 일산화탄소 중독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50대 남성이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동거하던 90대 노모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영구임대아파트 화장실에서 A(50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심장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거실에서는 모친 B(여·90대)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화장실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B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며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에 따르면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0여년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갖고 있어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자살고위험군으로 지정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우울증 관련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지난 14일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8일에도 상담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상담일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문의. 010-3605-5000